

## SOCIETY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증가세…“중범죄 우려”

전남온라인학교 첫수업 시작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개교한 전남온라인학교가 지난 20일부터 본교 내 온라인 강의실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온라인학교는 지난 3월1일 개교 이후 목포여중 4층 임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본교 일부 공간의 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일부터 전용 온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온라인학교는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학생들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전남온라인학교에 상주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미적분, 경제, 물리학Ⅰ, 일본어Ⅰ 등 10과목 15강좌가 개설돼 수업이 진행 중이며, 도내 10개 고등학교 12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2학기에는 학생 수요와 과목 다양성을 반영해 강좌 수를 더욱 확대한다. 인공지능 수학, 주제 탐구(R&E) 기초, 비판적 질문과 창의적 해결 등 15과목 21강좌를 개설, 도내 18개 고등학교에서 178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최근 3년간 2057건…구속 46건·구치소 72건 불과  
살인·납치 등 가능성…“피해자 보호·강력 조치를”

전국적으로 스토킹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이는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20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572건(광주 246건, 전남 326건), 2023년 676건(광주 278건, 전남 398건), 2024년 809건(광주 328건, 전남 481건)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 건수는 총 46건으로, 2022년 8건(광주 4건, 전남 4건), 2023년 13건(광주 8건, 전남 5건), 2024년 25건(광주 13건, 전남 12건)에 불과했다.

1개월 이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 4호 건수는 3년간 72건(광주 18건, 전남 5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유치) 등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도 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임시숙소 제공 등 안전조치와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안심세트(스마트 도어벨, 휴대용 비상벨, 창문 열림 방지 장치)를 지급하고 있다. 또 스토킹 행위자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스토킹 가해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선별·운영 중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한해서만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신변 보

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킹하던 윤정우(48)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윤정우가 한 달 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동탄에서는 납치살인 피의자 30대 A씨가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전 연인에 의한 폭행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납치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지난해 9월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전 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스토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이를 비판,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려던 50대 C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뒤 1개월도 되지 않아 보복 목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최근 광주고법 이의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언했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크다”며 “중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의 시선에 맞춰 영장 신청과 서면경고,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랑을 나눠요” 24일 광주 동구 지원1동 우미관에서 열린 ‘어르신 무료식사 나눔의 날’ 행사에서 박경태 우미관 대표 부부가 용산지구 한국 아파트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을 초청해 불백과 음식을 대접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경태 우미관 대표는 2023년부터 지역 내 30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매달 넷째 주 화요일을 ‘어르신 무료식사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 ‘24시간 운영’ 광주 동구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 국비 2억6000만원 확보…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

광주 동구가 내년 1월부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해 실시간 상황을 살펴보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 목표다.

그동안 동구 재난종합상황실은 본청 당직근무 형태로 운영, 신속한 대응이 떨어진다느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동구는 365일 24시간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수집·전파·보고·대응 가능한 재난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

월 ‘광주 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광주 광산구, 아산시, 평택시 등 타 지자체 상황실 운영 현장을 찾았다. 또 올해 4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 필요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국비)을 확보했다.

현재 동구는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 인력은 24시간 순환근무(오전 9시~다음날 오전 9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재난 발생 시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 전파와 초동상황 보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다.

동구는 각 부서 협의를 거친 뒤 11~12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반을 시범 운영, 전문교육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또 2025년도 하반기 인사를 통해 상황전담반 신설과 인력 증원(3명)을 통해 주민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장이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 재난 예·경보시스템(확성기·방송 등)을 연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들은 근무지는 청사 5층으로 배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형화면을 통해 정밀한 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외에도 청사 1층에 있는 야간 당직실을 5층으로 옮겨 당직 근무자 2명과 상황전담반 1명이 각종 재난 상황을 관할, 365일 24시간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층 당직실은 방문객 누구나 편하게 쉬 수 있는 휴게공간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 서구 ‘진짜 주민자치’ 실현 본격화

## 공론형 주민총회…의제 중심 공론장 마련

광주 서구가 주민총회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주민·마을 중심의 ‘진짜 자치’ 실현에 본격 나선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주민총회를 단순한 행사에서 주민 주도의 정책 결정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앞서 서구는 하루 일정으로 마을축제와 함께 의제를 결정하던 주민총회 방식을 주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마을의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는 공론형 총회 구조로 바꿨다.

특히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마을BI 멤버스’를 구성해 총회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하게 했으며, 마을축제와 주민총회를 분리해 의제 중심의 공론장을 마련했다.

또 본인 인증 기반의 ‘인1표’ 원칙을 도입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으며, 권역별 상설 투표소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1일 개최된 풍암동 주민총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구현됐다. 100여명의 마을 BI 멤버스가 약 100일간 총회를 준비했고, 도출된 의제들은 9

일간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들의 투표 참여, 개표 상황, 결과 발표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으며, 투표 현장은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하는 진지함과 열기로 가득했다.

풍암동 어린이동요합창단 나호니양은 “어린이의 의견도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생애 첫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김기장 서구청장은 “이제는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주민총회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구조가 서구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모든 세대와 함께 참여하는 진짜 자치를 통해 광주 서구가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행 지역상생공인

광남일보 | 시민경제연구소

꽃분이

동명동 핫플 놀리워 카페

- 꽃 · 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 부케드라이 (부케액자, 부케무드통, 부케캔들)
- 커피카페 (한실리오클라세)

전남대학교 | 장동로터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

010. 6411. 7975

blog m.blog.naver.com/qwer445566 | instagram.com/flower\_buni